

폭풍속 항해의 교훈

신학박사 조 덕운

[마가복음 6:45-53]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47 저녁이 되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49 그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영인 줄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50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매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52 이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53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없이 거친 풍랑과 바람을 어두운 밤에 경험하면서 항해했던 경험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번에 걸친 갈릴리 바다의 폭풍 항해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이 배워야 했던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물결과 바람도 통제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항해는 열두 제자들을 선택한지 오래지 않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 폭풍 항해를 통하여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고 그 분께 순종하는가! [마태 8:27]” 놀라게 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은지 오래지 않다면 그 분이 단지 초능력을 지닌 대언자 또는 현자가 아니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던 구세주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해는 헤롯왕이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서편 해안을 떠나 동북편, 오늘날 골란 고원의 남서쪽으로 일부러 가셔서 그곳으로 온 큰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저녁 시간이 되어 오천명 이상을 먹이신 이적을 행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날 자동차로 간다면 가버나움에서 골란 고원 서편 경계선까지는 불과 4~5 마일이니까 30 분도 채 안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걸어도 한두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예수님께서서는 구태여 배를 타고 항해하여 그곳으로 가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은 걸어서 그곳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녁에 배가 고프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누어 주신 빵과 생선을 먹고 그 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그러한 의도를 피하여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번째 항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기가 좋았더라면 불과 두어시간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를 거친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밤새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보시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역경을 견디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14-15]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친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힘든 항해를 하고 있음을 잘 보시고 가장 어두운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안해 하지 말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 [50 절]”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된 목적과 참된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와 깨우침 가운데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은 어두운 때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휘어 잡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며,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병들고 죽게 하는 일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4 경은 새벽 4 시부터 시작되어 동이 뜨기 전까지의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가 바로 그런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찬송가 487 장의 노래 말에 격려를 받기 바랍니다.

487 장. 1 절: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나며 수고한 후에 쉬이 있네

세번째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목적지인 갈릴리 서편 해안에 도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종말의 어두운 때를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 왕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번의 폭풍 항해 경험을 제자들이 당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먼 훗날 제자들이 된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림때까지 참된 신앙을 지니면서 인생의 폭풍 항해를 견디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실 우리의 대제사장되신 주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두움이 멀지 않아 종료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승리 계획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